‘동계 패럴림픽 전초전’… 감동의 겨울스포츠 축제 열린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27~30일 강원도 일원서
광주 2개 종목 20명·전남 6개 종목 83명 선수단 출전

장애인 동계스포츠 대축제인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평창·춘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동계체전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쇼트트랙) 등 7개 종목에서 선수부, 동호인부로 나뉘어 펼쳐진다.

대회에는 지체 장애, 시각장애, 지적(발달) 장애, 청각장애 선수 650명과 임원 및 관계자 350명 등 총 1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3월 펼쳐지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의 전초전이 될 예정이다.

이에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장애인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국가대표 백혜진-이용석과 알파인스키 활강 최사라, 파라 크로스컨트리 김윤지 등 패럴림픽 메달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동계체전에 참가해 경기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광주는 기존보다 참가 규모가 크게 줄어든 2개 종목에 2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예산 문제와 선수들의 이적 이슈가 겹치면서다.

지난 제22회 장애인동계체전에서 종합 17위(221점)을 기록한 광주는 올해 선수단의 참가 경험에 의의를 둔다.

먼저 빙상에서는 동호인부 윤좌헌과 한성주가 각각 500m와 1000m 경기에 나선다. 윤좌헌은 지난 대회 500m·1000m(IDD성인부)에서 예선을 거쳐 최종 결승에 진출, 각각 최종 5위의 성적을 거둔 선수다. 20회 동계체전에서는 남자 500m, 1000m 성인부에서 동메달 2개 획득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활약을 기대해볼 만 하다.

휠체어컬링에서는 선수부 정해천, 맹분호가 혼성 2인조에 출전한다. 이어 조영철, 김승일과 함께 혼성 4인조에 나선다. 앞선 대회에서 광주 컬링 선수들은 당초 목표였던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험을 쌓은 이들은 이번 대회에서 다시 8강 진출을 향해 달린다.

전남선수단은 6개 종목에 83명이 참가한다. 지난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종합 9위(8396점)를 차지한 전남은 이번 대회에서 4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전남도는 이번 동계체전을 대비해 실무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종목별 강화훈련 계획 수립과 종목별 경기용품(소모품)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컬링(청각 및 휠체어), 하키(골리) 종목에 신규 선수 3명을 영입해 선수단 라인업을 보강했다.

전남 선수단은 참가선수 41명 중 21명이 현재 취업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스키와 빙상 종목은 지난해 수준의 점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특히 컬링(휠체어) 4강, 하키 8강 진출을 노린다. 아울러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최재형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이병권 전남도스포츠산업과 과장은 “선수단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모두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에서 동계 종목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회를 준비해 온 모든 선수들이 흘린 땀만큼 좋은 결과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컬링(청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전남도장애인체육 선수단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장애인체육회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홈 개막전서 28-33 패

부산시설공단에 아쉬운 패배
김지현 9골·이효진 7골 빛바래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홈 개막전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4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홈 개막전에서 부산시설공단에게 28-33으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도시공사는 1승 3패 승점 2점을 기록, 리그 6위 자리는 유지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김지현이 9골(공격성공률 69.2%)·3도움, 이효진이 7골(공격성공률 87.75%)·2도움으로 맹활약했다. 강주빈도 4골(공격성공률 57.1%)·2도움을 올렸지만, 결과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전반전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광주도시공사는 이효진의 9m로 선제점을 따냈다. 이어 상대가 권한나의 스틸 이후 이혜원의 중거리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강주빈과 최수지가 연달아 득점을 올리면서 3-1로 앞서나갔다. 서로 점수를 주고 받던 경기는 광주도시공사가 엠티골 전략으로 공세를 취했지만, 역습을 당하면서 4-4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연지현의 2분 퇴장까지 나왔고, 분위기가 바뀌었다.

상대 이혜원의 윙득점과 김다영의 속공이 나오면서 4-6이 됐다. 8-11에서는 이민지의 두 번의 선방과 함께 연지현과 김금정, 김서진이 연달아 득점을 올리며 11-11 동점을 만들었다.

광주도시공사는 함지선이 교대 위반으로 2분 퇴장당한 뒤 흐름을 다시 내줬으나, 김지현의 중거리포로 14-15로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은 상대의 우세였다.

김서진이 윙득점 이후 상대 김다영과 정가희가 각각9m, 6m를 성공시키면서 15-17이 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추격점을 올리기 위해 꾸준히 공격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상대 골키퍼에게 가로막혔다. 24-29까지 벌어진 경기. 이효진이 7m 드로를 성공시켰다. 이후 윤별과 이효진이 추격골을 올렸으나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28-33으로 고개를 숙였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지난 24일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1라운드 4차전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이 작전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

▌광주스쿼시연맹, 2026 정기대의원 총회

최근 광주 동구 송하식당에서 열린 ‘2026 광주시스쿼시연맹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박태정 광주시스쿼시연맹 회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인재 육성…스쿼시 성장 기틀 다질 것”

박태정 회장 등 관계자 20명 참석…사업 보고·예산안 등 논의

광주시스쿼시연맹은 최근 광주 동구 송하회관에서 ‘2026 광주시스쿼시연맹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광주 스쿼시 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은 박태정 광주스쿼시연맹 회장, 임효택 부회장 등 연맹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취임 1년을 맞은 박태정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정기 감사 결과보고, 2025년 사업보고, 2025년 세입 및 세출 결산,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약개정 변경 등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대로 접수 및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결과, 유소년 프로그램 신규 공모 선정, 청소년 선수단 국가대표팀 발탁, 동호인 대회 추진, 2026년 대회 개최 계획 등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광주스쿼시연맹은 이번 총회를 통해 연맹의 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일선 스쿼시 현장에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박태정 회장은 “광주스쿼시연맹은 지난 1년간 기본에 충실한 운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 행정의 체계와 대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 등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연맹은 유소년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종목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5년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박태정 광주스쿼시연맹 회장은 ㈜삼원건축자재 대표로 활동하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광주스쿼시연맹과 인연을 맺었다.

2021년부터 광주스쿼시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스쿼시 저변 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으며, 엘리트선수와 동호인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2026시즌 멤버십 상품 혜택 다양화

오늘부터 공식 홈페이지 판매…프리미엄 등 3개 권종

프로축구 광주FC가 새 시즌을 맞아 다양한 혜택의 멤버십 상품을 공식 출시했다.

25일 광주FC에 따르면 최근 2026시즌 멤버십 정책을 공개하고 26일 오전 11시부터 2월 5일 오후 5시까지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1차 판매를 개시, 2차 판매는 추후 공지 예정이다.

이번 시즌 멤버십은 프리미엄, 베이직, 청소년 등 총 3개 권종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대비 청소년 권종을 신설해 선택 폭을 넓혔으며, 프리미엄과 베이직 권종 가격은 각각 50만원, 25만원으로 2025시즌 대비 각 10만원씩 인하했다. 청소년 권종은 10만원으로 책정돼 학생 팬층의 접근성을 높였다.

관람 편의성도 대폭 개선됐다. 홈경기 입장권 20매와 홈경기 50% 할인권은 좌석 구분 없이 전 좌석(W석·E석·N석)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경기별 좌석 선호도와 동반 인원에 따라 보다 유연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개선했다.

선예매 혜택 역시 확대됐다. 멤버십 구매자는 홈경기 기준 경기 1주일 전부터 선예매가 가능하며, 1경기당 최대 20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는 가족·지인 동반 관람이나 단체 관람 등 다양한 관람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권종별로는 베이직 멤버십에 멤버십 카드, 홈경기 입장권 20매, 선예매 권한, 구단 이벤트 우선 참여권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홈경기 50% 할인권 20매가 포함된다.

프리미엄 멤버십은 동일한 기본 혜택에 더해 홈경기 50% 할인권 30매, 프리미엄 전용 MD 패키지 및 기념 배지를 제공하며, 홈경기 주차권 1매를 신설해 홈경기 당일 이동 편의성을 강화했다. 청소년 권종에는 홈경기 50% 할인권 10매가 포함된다.

광주FC 관계자는 “2026시즌 멤버십은 가격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선예매 혜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즌 전반을 함께하는 팬들에게 체감도 높은 멤버십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시즌 멤버십 카드는 2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며,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타이거즈 키즈 모집

선착순 1000명…티니핑 굿즈 등

KIA타이거즈가 26일 오후 2시부터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2026시즌 ‘타이거즈 키즈 클럽’을 모집한다.

‘타이거즈 키즈 클럽’ 가입 가능 조건은 2020년 1월 1일생부터 2011년 12월 31일생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0명이다.

신청은 구단 공식 온라인 상품 매장인 ‘KIA타이거즈 팀스토어’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비는 9만9000원이다.

키즈 클럽 가입자에게는 키즈 클럽 카드와 랜야드, 키즈 클럽 자켓, 응원타월, 캐치! 티니핑 스페셜 굿즈 3종(리무버블 스티커·집색·랜덤 피규어), 쿠로미 인형 머리띠를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정규시즌 챔피언스필드 외야석 무료 입장과 홈경기 투어 프로그램 참여 혜택(추첨제) 등 행사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송하종 기자 hajong2@gwangnam.co.kr